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한길로*

서천 조정규의 봉천 덕흥보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1910년대 중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결국 귀환을 택해야만 했던 당대 유림의 실정과 내면을 살피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함안 유림 서천 조정규라는 인물을 통해 현지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과 난간들을 조명하면서 ‘귀환의 동인’에 주목하려 한다. 강제병합 이후 ‘피세와 피지’를 염두했던 조정규는 1913년 압록강을 건너 북경까지 유람하며 당지의 실황을 확인한다. 그곳에서 한인 이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목도한 그는, 귀국길에 당시 안동에 머물고 있던 이승희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타진하였다. 이듬해인 1914년 8월경, 그는 마침내 중국 봉천에 당도하여 한인 유교공동체와 독립운동 근거지 구축에 착수했다. 그들은 요중현(辽中縣) 덕흥보(德興堡)의 황무지 56만여 평(현 여의도의 2/3 크기)을 매입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했지만, 대내·외적 재난이 겹치며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후 공부로 발길을 돌려 그곳으로의 이주를 타진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였고 1916년 벗이자 동지였던 이승희 역시 죽음을 맞이하며 공교운동은 크게 위축된다. 이 사이 입적 강요와 비적들의 횡포, 일제의 회유 등으로 유림들의 제이주와 귀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1917년에는 국내 공교지회도 설립도 추진되었다. 국내 지회 설립을 지원한 그는 1918년 ‘귀환’하며 약 5년간의 재중 이민자의 삶도 종결된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국난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또 유학의 인문정신으로 약육강식의 시대와 맞서 투쟁하려던 근대 유림의 ‘유교적 저항’을 보여주는 궤적이었다. 더불어 이민자들의 난간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동포애와 이주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 실천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그의 귀국은 공교운동의 방향이 국내로 전환됨을 상징하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조정규, 『서천집』, 덕흥보(德興堡), 이승희, 공교 운동

* 김립대학교 한국(조선)어과 부교수

1. 서론

1905년 이후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피해 국외로 이주한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한제국의 망국은 일면 예견된 것이었다. 조국은 사실상 이민족의 지배에 들어간 망국의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현실과 일절 타협하지 않으려는 지식인들 역시 점차 늘어났다. 특히 이역의 땅으로 가서 ‘망국’(望國)하는 삶을 자처하는 ‘지방 유림’들의 집단 이주가 매우 증가하게 된다.¹ 이때 그들이 택한 곳은 과거 고구려의 고토(故土)이자 고국과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 또한 수 세기에 걸쳐 교류해온 유교문명의 종가(宗家) ‘중국’의 동북 일대였다.

하지만 당시 이들 유림 앞에 놓인 대·내외적 상황은 과거와 매우 상이했다. 우선 청나라가 무너진 중국은 과거 ‘중화제국’으로의 복귀가 아닌 공화의 기치를 내걸고 ‘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더불어 유자들 자신 또한 과거와 같은 정치·문화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홀시할 수 없는 ‘중간’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전 시대의 문명적 세례를 받은 사실상 마지막 세대로서, ‘수구와 개화·망국과 식민·전통과 근대’의 중간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던 ‘사이’적 존재였다. 더불어 당시 중국으로 떠난 ‘유림’이란 존재는, 한국과 중국의 ‘틈’에 놓여 있던 주요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² 요컨대 ‘유민(遺民)’이면서 유민(流民)’이었던 이들 삶의 궤적은 곧 ‘식민과 독립·근대와 전근대·신구(新舊)·한·중’ 사이에서 분투하면서도 또 표류하던 자들의 상흔과 같았다. 즉 이들의 중국행은 ‘기로’에 선 근대 한국

1 이는 1898년 중국 통화현에 정착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의 사례로 그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와 “망국단(望國壇)을 세워 초하루와 보름에 올라 절하고 망묘단(望墓壇)을 세워 매일 절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柳麟錫, 『毅菴集』 4, 「還到畿甸情辭(庚子十月)(3)」, “於是築望國壇, 朔望登拜, 築望墓壇而日拜.”).

2 참고로 1910년 당시 만주 전체의 한인 이민자 수는 약 5만여 명에 달했다고 전한다(김주용(2021),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재외한인연구』 54, 재외한인학회, p. 72).

유림이 보여준 유의미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함안 출신의 유림 서천(西川) 조정규(趙貞奎, 1853~1920)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³ 특히 그의 행적은 근대 유림의 중국 기행과 이주, 그리고 여의치 않은 각종 사정으로 말미암아 귀향할 수밖에 없던 과정을 잘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기행-이주-귀향’ 과정에서 남긴 한문 기록들은 중국행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의 실상을 비교적 선명히 담고 있어 당대 이주 지식인으로서의 대외활동과 조우한 현실적 문제들을 조명하는데 유용하다. 즉 국내에 남아있던 유림과 중국 서간도 일대에 머물던 유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로 조우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는지, 또 단순한 피지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면했던 난간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즉 그의 사례는 이주의 배경 및 동인과 함께 귀향의 전후 ‘맥락’을 비교적 소상히 담고 있어 주목된다.

아래에서는 먼저 그의 정착지이자 개척지로서, 새로운 유교공동체의 터전으로 낙점된 중국 봉천(현 심양) ‘덕홍보’로의 이주 과정을 조정규 중심으로 재조명해보고 그곳의 현재 모습을 통해 과거의 면모를 비정해 볼 예정이다.⁴ 이어서 만 61세의 나이에 시작된 그의 타향살이에서 사실상 유림

3 조정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조정규의 생애와 시 세계 검토, 서간도 이주 배경과 동인 그리고 그 시기의 우국시’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또한 그의 중국 기행문 「북정일록(北征日錄)과 관련 시, 그리고 북경에서 만난 중국인과의 필담에 주목한 연구 등이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그의 중국행의 배경과 시문에 드러난 내면세계에 집중하면서도, 그가 머물던 지역의 땅 덕홍보의 실제와 봉천에서의 생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귀향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윤호진(2010), 「西川 趙貞奎의 삶과 詩世界」,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함안군·함안문화원, 술이, pp. 119-170; 이은영(2012), 「20세기 초 유교지식의 망명과 한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273; 전설련(2019), 「서천 조정규의 중국 체험의 시적 구현과 그 의의」, 『인문사회 21』 36, 아시아문화학술원, pp. 1503-1517; 한길로(2021a), 「근대 한·중 문인의 필담에 나타난 ‘중화민국과 유도’ 인식의 일면」, 『인문과학』 8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177-205].

4 덕홍보에 대한 논의들은, 한주학파의 계승자로서 재중 유림과 덕홍보의 정신적 지주 역

했던 대외활동이자 기행이 된 ‘곡부’(曲阜) 탐방과 국내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조건들을 조명하려 한다. 요컨대 조정규를 통해 식민지가 된 조국을 벗어나 20세기 초 이역의 땅 덕홍보로 이주한 한인 유럽의 희망과 통한, 그리고 현지에서의 좌절과 귀향까지의 면모를 살핌으로써 당대의 실상을 보다 두텁게 분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중국 기행의 배경과 봉천 덕홍보 이주의 전말

조정규는 면면히 이어져 온 남명학풍을 기반으로 기호지방의 실학 학풍까지 이어받아, 예학과 함께 민생과 국부를 강조한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 학맥이 진작된 함안 출신이다.⁵ 유도의 봉괴와 ‘국망’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조정규는 해외로 눈을 돌려, 그곳에서 유자로서의 삶과 소명을 다하려 한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당시 유럽들이 발길이 이어졌던 중국 서간도 일대로, 그에게 중국은 여전히 “천하의 중국(宗國)”으로 한 번은 꼭 밟아야만 하는 곳이었다.⁶ 이는 1913년 5월 지우들과 함께한 첫 중국기행을 기점으로 구체화 된다. 1910년 초 일가이자 지우였던 조병택(趙昺澤, 1855~

할을 했던 ‘한계 이승희’를 중심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덕홍보’로의 이주는 국내에 남아있던 조정규와 그의 일가 그리고 지우들의 역할 또한 상당히 지대했었다. 즉 조정규는 덕홍보 이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의 관점에서 덕홍보의 이주와 좌절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상정된다[서동일(2013), 「1910년대 한중 유럽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170-175; 김기승(2007),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 57; 이윤갑(2013), 「한말 일제 초기 이승희의 민족운동」, 『동서인문학』 4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83-108].

5 강동욱(2011), 「성재 허전 강우지역 문인 고찰」, 『남명학』 3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pp. 248-249.

6 金梲, 「(西川子)傳」, 『西川集』 卷5, 「軫復曰: 中國天下之宗國也, 盍往觀焉!」 참고로 『서천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활용했다.

1914)이 이미 중국 서간도 일대를 방문한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조카를 요하에 보내 중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한 상황이었다.⁷ 즉 이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이주’이면서 동시에 공자가 언급한 ‘피지’이자 ‘피세’의 실천이었다.⁸

상술한 것처럼 그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국행을 택한 것은, 다른 유림들과 유사하게 중국을 여전히 문화적 중국으로 삼고 그곳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전통적 ‘중화주의 세계관’과 연관된다. 이는 북경에서 중국 문인을 만난 그의 발언, 즉 “중국은 천하의 중국이지요. 중주가 올바르게 천하가 바로 설 수 있으나 중주가 올바르게 않다면 천하의 바름이 가능할리 없겠지요.”, 또 “천하는 망할 수 있지만 우리 도는 망할 수 없지요. 삶과 죽음은 논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화이만큼은 불가불 논해야 하겠습니다.”와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나 있다.⁹ 하지만 혁명이 기운이 들끓던 1913년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 그가 기대했던 전통적인 중화관, 즉 ‘대명(大明)·구제(舊制)·화이’와 같은 개념은 설 자리를 잃은 상태였다, 이에 그는 “이제 어디에서 중화를 다시 볼 수 있단 말인지요?”라며 절규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¹⁰ 이렇게 ‘중화인’[한족(漢族)] 조차 전통적 ‘중화’의 가치를 외면하는 현실을 목도한 그는 몸소 이곳에 머물며 직접 중화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결심한다. 즉 “유교라는 보편 문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했던 선현들의 길을 이어, 그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화라는 보편의 ‘복판’에 머물며 자정(自靖)하려던 것”이었다.¹¹

더불어 이주에 대한 결심을 이끈 또 하나의 결정적인 동기는 1913년 당

7 조병택은 당시의 일정과 여정을 담은 「서정일록(西征日錄)」(『一軒集』卷5)을 남겼다.

8 『論語』, 「憲問」, “子曰: 賢者辟世, 其次辟地, 其次辟色, 其次辟言.”

9 趙貞奎, 『西川集』卷1, 「奉呈李毓如鐘豫」, “貞曰: 夫中州, 天下之宗國也. 中州正, 則天下可正; 中州不正, 則天下無可正之望也.”; 盧相稷, 「墓碣銘」, 『西川集』卷5, “筆談曰: 天下可亡, 吾道不可亡; 生死可不論, 華夷不可不論.”

10 趙貞奎, 『西川集』卷1, 「奉呈李毓如鐘豫」, “嗚呼! 中華何處, 復可觀也?”

11 한길로(2021a), p. 197.

시 국난과 가난을 피해 도강(渡江)해 온 한인들의 처참한 ‘삶’의 목도였다. 즉 당시 그들의 생활은 “소나 말”과 같은 참혹한 생활의 연속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¹² 현지에서 그의 눈에 포착된 요하까지 당도한 수만 명이 넘는 한인들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홀어지고 헤어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거나 망하는 일이 서로 이어져, (송장이 되어) 땅강아지나 개미의 먹이가 되는’ 신세였던 것이다. 풍문이나 전언이 아닌, 중국을 유람하며 이를 직접 본 그는 그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집 재산을 정리하고 전민(田民) 삼십여 사람을 모아 쟁기를 들쳐 메고 나귀와 송아지를 몰아 기차에 싣고” 목적지인 봉천에 도착하게 된다.¹³

이는 그저 ‘일신의 자정만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애민(愛民)과 솔선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해 온 선유들의 실천 정신의 계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그것은 이 시기의 유림이 비로소 실감하게 된 ‘동포애’의 체현이기도 했다. 1912년 서간도를 방문한 장석영이 서간도의 동포를 보며 “식량도 노자도 이미 다하여, 장정의 남자도 배를 채우지 못하구나. 북풍에 차디찬 눈발 불어오니, 늙고 약한 이들 윈송이처럼 통곡하구나. (...중략...)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나, 밭도 집도 이미 모두 팔았고, 또 앞으로 나가려 하나, 배나 수레 샅마저 없도다. 皇天께서 우리 신

12 참고로 현재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한인들의 봉천(심양) 유입과 정착은 1870~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양에서 한인의 활동이 보고된 최초의 기록은 1882~1887년 사이 서상륜(徐相崙)과 백홍준(白鴻俊) 등이 삼양에서 조선어 『성경』을 번역 출판했다는 언급이다. 더불어 이주와 관련해서는 1906년 오가황촌(吳家荒村)에 김시순(金時順) 등 3가구가 이주하여 수전 개발을 했다는 기록이 최초이다. 현재까지도 심양의 상정거리라 할 수 있는 서탑 인근의 경우, 1910년을 전후로 50호 이상의 정착민이 있었다고 전한다[沈陽市民委民族志編纂辦公室 編(1998), 『沈陽朝鮮族志』, 遼寧民族出版社, pp. 1-35].

13 盧相稷, 『西川集』 卷5, 「墓碣銘」, “負戴至遼河者屢萬人, 化離顛沛, 死亡相繼, 公涕泣語同志曰: “忍令先王赤子爲殊邦螻蟻食乎! 歸而損家貲, 募田民三十餘人, 負耒耜驅驢犢, 納之氣輪而至奉天.”

14 이은영(2012), p. 60.

민 내셨는데, 곤액이 어찌 이리도 극심하던가?”¹⁵라며 짙은 애탄을 표한 것처럼 직접 목도한 서간도 한인들의 참혹한 현실은 그의 이주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유교 이념의 재건이라는 당위도 중요했지만, 처참한 한인들의 삶의 개선 역시 그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인지된 것이다.

1913년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를 만나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나눴던 그는, 약속한 대로 1914년 봉천에 도착한 후 사우들과 함께 ‘덕홍보’로 향할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승희와 함께 이곳을 “만리 이역의 고향”으로 만들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¹⁶ 즉 그들의 내면에 품고 있던 ‘중화가 부재한 중화’의 땅에 다시금 중화의 가치를 재건하고 동시에 산산이 흩어져 있던 한인들을 집중 이주시켜 농토를 개간하며, 또 직접 (유교)교육까지 실현하려던 계획이었다.¹⁷

당시 이승희는 밀산부(密山府) 한흥동(韓興洞)에서의 좌절을 딛고 안동(현 단동) 성신대(誠信泰)를 거점으로 삼아 공교(孔教) 운동에 진력하고자 했

15 張錫英, 『晦堂集』 卷2, 「見間島流民有感」, “資糧已告乏, 丁男不充腹. 北風吹寒雪, 老弱如猿哭. …… 更欲還故國, 田宅已盡賣. 又欲前進去, 舟車無錢買. 皇天生我民, 困厄胡此極.”

16 趙亨奎, 「行狀」, 『西川集』 卷5, “明年甲寅(1914)復入遼野, 墾所買荒地, 國中知舊從之者三十餘人. 韓溪嘗謂之曰: 君我相得萬里故鄉.”

17 李基元, 『韓溪遺稿』 卷9, 「痛慕錄」, “甲寅, 回住奉天, 與門人權丙夏柳浚明金璉煥等, 設韓人孔教支會, 又與趙西川貞奎, 分擔巨金, 買得遼中縣德興堡土地二百八十日耕, 欲設滿洲韓僑獨立根據地.” 상술한 것처럼, 조정규의 중국 이주에는 이승희와의 연관성이 심히 주목된다. 먼저 두 사람의 고향인 함안과 성주는 모두 옛 가야의 역사적 전통과 유서가 남아 있는 인근 지역이었다. 또한 이진상(李震相)의 아들 ‘이승희’와 조정규의 정신적 스승에 해당되는 ‘허유’ 그리고 가까이 교류하며 배웠던 ‘곽종석’은 모두 한주학을 계승한 ‘주문팔현’(洲門八賢)으로 꼽히는 문인이었다. 즉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상당히 밀접한 연결 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사상적 공감대에서 조정규는 피세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함께 이승희의 뜻을 심분 공감하고 의지하며 그의 집단농장 경영에 일조하고자 덕홍보 개척에 기여이 동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승희의 아들 이기원이 ‘한인공교회’를 수립하고 또 조정규가 더불어 거금을 분담하여 그곳에 땅을 사, 만주지역 한인 교포들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세우고자 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조정규가 중심이 된 국내 유럽은 특히 자금 조달의 문제에 깊이 공헌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성사진 출처: 腾讯地圖(<https://map.qq.com/>), 2021. 9. 10.

[사진 1] 좌측의 사진은 위성에서 본 현 덕흥보와 그 일대이다. ①은 덕흥보의 현 위치로 현 심양 요중구(辽中区) 양사강진(杨士岗镇) 최북단에 펼쳐진 요하평원(辽河平原)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불어 ②를 통해 덕흥보는 혼하(浑河) 우안(右岸)의 주요 지류인 ‘박하(溲河)의 말류(未流)가 흘러오는 지형임을 알 수 있다. ③은 덕흥보 주변에 조성된 진주호(珍珠湖) 습지와 단결수고(团结水库, 즉 단결댐) 일대인데 현재 이곳은 요녕성 유일의 평원 댐이다. ④는 현재 후덕촌(后德村)으로 덕흥보촌과 3km가량 떨어진 곳인데 지명으로 미루어보면 과거 이 일대까지가 덕흥보 마을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측은 필자가 촬영한 현재 덕흥보 입구의 표지석이다.

었다. 하지만 이곳에 재중 유림들과 국내 독립운동 세력이 집결하면서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이승희는 안동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규모 있는 ‘공동체 거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¹⁸ 즉 독립운동의 방략을 고려해서도 또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던 공교 운동의 진척을 위해서라도 안동보다는 더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 고려되었다. 1912년 서간도 및 만주일대를 살펴본 지우(知友) 장석영(張錫英, 1851~1926)의 조언¹⁹처럼 이승희 역시 복거(卜居)의 땅을 요동에 해당되는 ‘봉천’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승희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실현되는데 있어 조정규와의 만남과 그의 이주 약속은 매우 중대한 기폭제이자 추진제가 되었다. 이승희

18 서동일(2016),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대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 56, 수선사학회, pp. 184~185.

19 張錫英, 『遼左紀行』, “(3월 1월 조) 苟可以置家於遼陽等處, 或山海關以北, 則大可.”

자신이 “나는 또한 함께 도모할 자가 없었는데, 마침 조정규와 젊은 벗 몇 사람을 얻어 함께 요중현(遼中縣)에 있는 황무지 280일경(日耕)을 매입하였다. 올해부터 벼 심고 집 지으며 일대에 계속 한 구역의 학사(學舍)를 건립하여 후학들을 모아 가르치려고 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덕홍보’로의 이주에 있어서 조정규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는 후에 이광룡과 함께 합류한 정돈섭이 “마침내 패수를 건너 요산(遼山)에 당도하여 대계 이승희 옹의 봉천 우관(寓館)을 방문하니 서천 조정규와 더불어 피지를 상의하고 있었다.”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난다.²¹ 또 이현덕(李鉉德)의 “덕홍보에 도착하여 대계와 서천 어른을 만났다.”라는 기술 또한 당시 덕홍보에서 조정규의 위상을 가늠하게 만드는 사례다.²² 요컨대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정규가 중심이 된 고국의 동료들이 합하면서 이승희는 상당한 심적·재정적 안정을 느끼며 구체적인 이행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고, 덕홍보에서 조정규 위상 역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심양 중심지로부터 대략 50km 떨어져 있고 또 광활한 농토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덕홍보를 ‘서간도 지역 한인’의 독립운동 기지이자 유교 공동체의 터전으로 삼았다. 상술한 것처럼 그 규모는 280일경으로 약 1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였다.²³ 이를 현재 기준으로 그 규

20 李承熙, 『韓溪遺稿』 卷4, 「(與韓基昱)別紙(40)」, “吾人又無可謀者, 適得趙兄貞奎及少友幾人, 合買二百八十日耕荒地於遼中縣, 擬以今年種稻築屋, 繼立學舍一區, 聚後生而教之.”

21 金佑林(一名金楓), 『陶庵集』, 「(附錄)行狀」, “遂涉涇水抵遼山, 訪李大溪翁承熙奉天寓館, 西川趙貞奎, 與之相避.”

22 『崑山集』 卷4, 「北征日錄」, “(四月)十一日至德興見大溪及西川丈, 以路毒劇苦, 丁伯崇燉燮黃鶴來來見敘話, 至三十日連運不止.” 참고로 황학래는 이승희의 제자로 이승희의 임종을 지킨 인물이지만 자세한 생몰은 미상이다. 단 이두훈의 「가장」에 따르면 그 역시 농장 건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弘窩集』 卷30, 「家狀」, “甲寅(1914)入奉天訪剛齋, 既還遣門生黃鶴來, 設農以綱繆之, 將學家而赴之.”].

23 『韓溪遺稿』 卷8, 「年譜」, “相與共業, 買地二百八十日耕, 可營百戶居住.” 참고로 일경(日耕)은 소 쟁기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규모로 대략 10무를 말한다. 현재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추산은 가능하다. 조선시대 경무법(頃畝法)은 중국의 전제(田制)를 참조하면서 1무(畝)는 보통 240보(步)의 면적을 책정하고 있었고, 1840

모를 추정해보면 1일경은 약 2,000평인데, 이들이 덕홍보 정착을 위해 매입한 ‘280일경’은 대략 560,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된다. 즉 축구장 254개소, 여의도(약 87만 평)의 약 2/3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리해보면, 1년 전 답사를 통해 대략의 현실을 파악한 조정규는 지역의 사우 및 농민들과 함께 봉천으로 건너와 이승희와 합류한다. 이후 함께 이주한 농민들과 더불어 이곳을 일구며 구국의 방도와 새로운 ‘유교공동체’ 구축의 준비를 마친 채 봄을 기다렸다. 그것은 중화에 대한 끈을 이어가며 유도와 고국의 ‘재기’를 도모하면서 궁벽한 한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려는 의지의 실천이었다.

3. 농장 개척의 실패와 국외 공교운동의 침체

1914년 음력 8월 즈음, 그는 유자의 이상을 고수하면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고 또 이향에서 고통 속에 지내던 동포들과 함께 하고자 봉천으로 건너가 덕홍보에서의 생활을 준비했다.²⁴ 그는 곧 이민족에게 종묘와 사직 그리고 국토마저 빼앗기고 짓밟힌 경술년 이후,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마땅히 중화에 머물며 당우(唐虞)의 고도를 유람하고 주공의 유법을 행해야 할지라. 넓은 황하와 높은 태산, 이는 진실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큰 평소

년 『현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요동에서 산해관 일대는 “밭 십무(十畝, 2,400보)를 1일경(日耕)”으로 삼았다고 한다. 1무를 현재의 도량형 단위로 환산하면 약 666.67㎡으로 약 200평이기에, 1일경(10무)은 약 2,000평에 해당된다[『현종실록』 권7, 「현종 6년 3월 25일 조」, “召見回還使臣于熙政堂. 書狀官李正履, 進聞見別單: 臣自遼東至山海關外, 詢問老農及民戶一年稅納之數, 則田十畝爲一日耕.”; 이경식(2005),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 119; 중국사학회(2005), 강영매 역, 『중국역사박물관』, 범우사, p. 46]. 참고로 현재 축구장 한 곳의 규격은 대략 2,200평으로 알려져 있다.

24 『韓溪遺稿』卷9, 「年譜」, “(八月)相地于遼中縣德興堡.”

의 뜻이노라.”는 언급을 결국 실천에 옮긴 것이다.²⁵

덕흥보 개척에 힘 쏟고자 했던 일원들은 이미 목전에 닥친 대·내외적 난제들을 보다 유교적인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희망을 일궈 계획을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승희를 필두로 한 ‘영남’의 유림들이 있었다.²⁶ 이승희 그리고 조정규와 함께 이주한 인물들은 크게 이진상(李震相) 학맥과 허전(許傳) 학맥과 깊이 연관된 중진과 원로였다.²⁷ 이때 함께한 인물들은 이광룡(李光龍)·이계동(李啓東)·정돈섭(丁敦燮)·이우열(李愚烈), 이현덕(李鉉憲)·이성훈(李星勳) 등이었다.²⁸ 이듬해 음력 2월, 봄 농사를 위해 이곳에 도착한 조정규 일행은 최선을 다해 그곳을 일구고자 노력했지만 실제의 상황은 기대와는 상반되게 진행되었다. 『서천집』에는 “그곳이

25 宋鎬坤, 『西川集』 卷5, 「墓誌銘」, “丈夫生世, 當居中華, 游唐虞之古都; 行周公之遺法, 黃河大矣; 泰山高矣, 是固心中一大素志.”

26 물론 이는 영남 지역 유림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안동 관전현(寬甸縣)에 머물던 의암 유인석과 성신대에 머물던 용인 출신의 맹보순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재중 사회에서 호서와 기호 유림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남 지역 유림의 비중이 비교적 다수였던 것 역시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지점이다. 한편 1912년 이 지역을 방문한 장석영의 언급, 즉 “대개 한인들이 서간도로 이주하는데 태반은 영남이고 관동과 호서 및 호남도 또한 상당하였는데 대략 하루에 누천(累千)이었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일반 이주민 역시 영남인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張錫英, 『遼左紀行』, “(2월 4일 조) 皆韓人之移於西間島也, 太半是嶺南, 關東湖西南亦多, 大略日計累千.”, 11면].

27 서동일(2013), 「1910년대 한중유림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 158 참조.

28 『韓溪遺稿』 卷8, 「年譜」, “相地于遼中縣德興堡. (註)先生爲營集團農場, 使韓人集住而墾耕教育, 趙西川貞奎, 李進士光龍, 李啓東, 丁敦燮, 李愚烈, 李鉉憲, 李星勳諸公, 次第入住.”(『韓溪遺稿』 卷1, 「德興堡述懷」) 이들 가운데 제반 기록이 부재한 이우열을 제외한 이들의 신상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호(자)	본관	지역	비고	출처
李光龍	季七	宣城	미상	안동 유림 류도헌(柳道獻, 1835~1909)의 문인	『韓溪遺稿』 卷4, 「答李進士季七光龍」; 『韓溪遺稿』 卷9, 「輓(侍生宣城李光龍)」; 『田園文集』 卷8, 「祭文(門人權準斗金潤在李光龍金鼎燮金永國權錫永等)」.

성의 변두리에 있어 각종 어려움이 많아 끝내 이루지 못했다.”라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²⁹ 하지만 이승희가 밝힌 당시 덕홍보에서의 생활은 다가온 돌발 재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던, 그래서 심히 처연해진 당대 개척 유림들의 내면을 생생히 담고 있었다.

을묘(1915 - 필자 주) 2월 20일, 서천 조정규·상사(上舍) 이광룡(李光龍)·국명(國明) 이문주(李文周)·백송(伯崇) 정돈섭(丁敦燮) 등 여러 동지들이 함께 요중현 덕홍보의 새 황농지(荒農地)로 건너 오셨다. 때마침 지난 겨울 빙설이 새로 녹으면서 하천이 크게 넘쳐 경영하려던 새 황무지가 온통택국[澤國, 수향(水鄕)으로 소택(沼澤)이 많은 곳을 지칭 - 필자 주]이 된 것을 보게 되었지만 해자를 쌓고 땅을 개간한 것이 없어 농민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기운이 꺾인 채 한숨 짓기도 하고 아울러 별떡 일어나기도 했다. 3월 초 10일, 아들 이기인과 이척(李戚, 즉李可允, ?~?)의 조카 이현덕(李鉉德, 1887~1967)이 모두 와 서로 혀를 차며 탄식하니 여러 사람들이 물줄기를

이름	호(자)	본관	지역	비고	출처
李啓東 (=李鳳義, 1868~1937)	尺西	鐵城	안동	독립운동가, 이승희의 사돈, 석주 이상룡의 동생	『韓溪遺稿』卷9, 「輓(并小序契下生鐵城李啓東)」; 『韓溪遺稿』卷7, 「年譜」.
丁敦燮 (1870~1941)	陶庵 (伯崇)	錦城	성산	곽종석 문인, 문집 『陶庵集』	『韓溪遺稿』卷9, 「輓(侍生錦城丁泰鎮)」; 『俛門承教錄』.
李鉉惠	晶山 (伯卿)	載寧	진주	문집 『晶山集』	『韓溪遺稿』卷8, 「祭文(侍教生載寧李鉉德)」; 『信古堂遺輯附錄』卷2, 「挽李伯卿鉉德」
李星勳	미상	星山	고령	미상	『心山遺稿』卷1, 「挽李光汝星勳」; 『信古堂遺輯逸藁附錄』卷1, 「挽章李星勳」; 『遜齋實記』, 「遜齋實記跋」

29 金梲, 「(西川子)傳」, 『西川集』卷5, “謾開田數千頃於德興堡, 約募國中有志士者共就, 屬邊省多難事, 竟不集.”

막고 제방을 세우려 했으나 봄 농사를 서둘러 나누어야 하는 통에 끝내는 의론이 갈라져 자리가 파하여 마침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농장을 경영한 지 22일째, 홀연히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봉천이 크게 요동쳤다. 23일 기인(이승희의 차남 - 필자 주)이 황급히 봉천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밤사이 봉천 숙소에 강도가 기회를 틈타 집에 들어와 소장하고 있던 돌려주지 못한 황무지의 잔금과 여러 사람들이 농장에 부쳐준 재화가 모조리 도적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뒤, 기인은 그 집에서 철수하여 덕흥보로 넘어왔는데 들리는 것으로는 원세개 정부가 (일본에 먼저) 뜻을 굽혀 화해를 청했다고 한다. 이정(李丁, ?~?)과 여러 사람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신민부³⁰ 사리(沙里)로 넘어갔고 나와 서천 그리고 현덕만이 여전히 빈 우사(寓舍)를 지키고 있었다.³¹

유생이자 노인이었던 그들은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상황을 관망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장 덕흥보를 점지하고 그곳의 황무지와 못을 개간했는데 날이 밝으면 삼태기와 팽이를 잡고 직접 밭 갈아 심으며 아침에 나갔다고 저물녘 돌아왔다. 밤에는 소매를 정제하고 책상 앞에 마주하고는 심경(深更)에 이르도록 올곧이 앉아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피로가 이미 심한 것을 걱정했다.”라는 정돈섭 관련 언급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개척민으로서의 역할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땀 흘렸던 것이

30 현 요녕성 신민시(新民市)로 현재 덕흥보에서 직선거리는 약 39.4km이다.

31 李承熙, 『韓溪遺稿』 卷1, 「德興堡述懷」 “乙卯(1915 - 필자 주)二月二十日, 偕趙西川貞奎李上舍光龍李國明文周丁伯崇敦燮諸同志, 赴遼中縣德興堡新荒農地, 適會前冬氷雪新融, 河大漲, 所營新荒, 一望澤國, 無以築壕墾土, 農人盡垂首喪氣, 嗟與並興. 三月初十日, 基仁與李威侄鉉德偕至, 相與嘆咤, 諸君期欲截流立防, 趁辨春農, 卒以岐議坐罷, 遂致四散. 營農二十二日, 忽報中日開仗, 奉天大擾. 二十三日, 基仁急還奉寓, 夜聞奉寓強盜, 乘機入寓, 所藏荒地餘價未還者, 及諸人所付營農之貲, 盡入賊手. 後數日, 基仁撤寓, 赴德興, 聞中政府屈意請和, 李丁諸君携農丁, 走新民府沙里, 余與西川及鉉德, 尚守空寓.” [참고로 본 문장은 시에 대한 자주(自註)이다.]

다.³²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유럽들이 포함된 덕홍보 개척민들의 염원은 불과 채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지리에 밝지 못했던 이들은 사실상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봉농사를 서둘러야 했던 이들에게 한 번 일어난 재해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³³

이승희의 언급처럼 심지어 당시의 시대 상황도 대단히 좋지 않았다. 1915년 1월, 일본이 만주에서의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세개 정부에 요구한 이른바 “21개조”를 발표하자, 격렬한 반대와 함께 ‘반(反)원세개’ 운동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³⁴ 이로 인해 봉천에도 상당한 소요가 있어 당시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흡사 개장(開仗), 즉 개전의 의미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봉천 숙소에 도둑마져 침입해 잔여 부지 매입 대금과 각종 이주 자금까지 전부 도난당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규는 이승희와 함께 모두가 떠난 덕홍보의 빈 우소를 우두커니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승희가 안동에서 이곳으로 재차 이동한 것은 당시 재중 한인 사회에서 유럽계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과도 연결된다. 그가 동삼성 한인공교회를 조직한 뒤 북경에 가서 승인을 기다릴 때 들었던 것처럼, 이미 설립된 ‘연길공교회’는 기독교 중심의 ‘간민회’(墾民會)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³⁵ 그러했기에 이승희와 함께 이곳에 당도한 조정규에게도 공

32 金佑林(一名金棍), 『陶庵集』, 「(附錄)行狀」, “因占農庄德興堡, 墾起荒湫, 公日操畚鍤, 躬親耕稼, 朝出暮歸, 夜則整襟對案, 兀坐以至深更, 人或問其疲勞已甚.”

33 『韓溪遺稿』卷7, 「年譜」, “乙卯(先生六十九歲)移寓于德興堡而旋罷。(注)……蓋因地理之未諳而見欺於清人也, 不得已罷之, 同志者各自四散, 從他求生業, 此是天不祚宋, 歎息何及!”

34 야부우치 기요시(1997), 전상운 역,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p. 202.

35 이승희는 북경에 머물던 시기 간민회와 간도 공교회의 내분 사태를 듣고 “새로운 견해가 구습을 소경이라 꿩박하니 새사람과 옛사람 모두 흐릿해 지는구나.”라며 탄식한 바 있다(李承熙, 『西遊錄·聞北間島孔教墾民兩會相爭有感』, 『韓溪遺稿』卷1, “新見憑陵舊習曠, 而新而舊兩夢夢.”).

동체의 성공은 재중 한인유림의 위상과도 연결되기에 필히 달성해야 할 중대 과업과도 같았던 것이다. 즉 이곳을 유교 인사들의 중심지로 만들어 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면서도 독립운동과 공교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덕홍보의 좌절과 함께 목표는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절망에서 그의 마음이 향한 장소, 그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실상 공교 운동의 본산인 산둥성의 ‘곡부’(曲阜)였다. 그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려 공교 운동을 통해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다.³⁶ 사실 과거 유림들에게 곡부는 가장 존귀한 ‘성향’(聖鄉)으로 각인되었지만, 직접 갈 수 없어 지리지나 성적도(聖蹟圖)를 살피거나 혹은 궤리사(闕里祠) 같은 공간을 창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상되고 연모되는 공간이었다.³⁷ 하지만 이런 곡부에 직접 가게 된 그의 당시 상황은 일종의 성지참배를 앞둔 순례자처럼 기대와 환희의 감정만을 기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덕홍보 구성원들의 곡부행은 사실상 이들의 유일한 대외활동이었는데 그 계기는 바로 매년 8월 27일(음력)마다 열리는 ‘공자탄신제’였다.³⁸ 단 곡부에 모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명대의 구제(舊制)를 계승한 의관을 정제한 이는 오직 ‘조정규’뿐이었다.³⁹ 1915년 8월, 당시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고 문묘 앞에 선 그의 소

36 金槎, 「(西川子)傳」, 『西川集』 卷5, “西川子乃轉游曲阜, 謁孔子廟.”

37 한길로(2021c), 「한계 이승희의 곡부 방문 소회와 현실인식 고찰」, 『어문논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p. 191.

38 한편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1910년대 한국 유림들의 최초 곡부방문은 1913년 용인 출신의 공재주(孔在周, 1861~1920) 이후 1914년 이승희와 그의 소개를 받은 이병현(李炳憲)으로 이어졌고 8월에는 권병하(權丙夏)가 방문했다. 이어 1915년에는 조정규·정산(鼎山) 이현덕(李鉉德, 1887~1964)·도암(陶庵) 정돈섭(丁敦燮, 1870~1941)·이광룡(李光龍, ?~?)·1917년 경남 함양에 있던 안효진(安孝鎭, 1855~1943), 또한 곡부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도암집』에도 기재되어 있다[서동일(2013), pp. 158-160].

39 다른 곳이 아닌 ‘곡부’에서 공자탄신일을 기념하는 그날, 유일하게 한인 유림 조정규만이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대단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당시 재중 한인 유림이 가장 원칙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비교적 고립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다(盧相稷, 「墓碣銘」, 『西川集』 卷5. “爲

회는 다음의 고유문에 잘 드러나 있다.

“부자의 도를 밝히면 천하가 다스려 질것이나 도를 밝히지 못하면 천하는 난세가 될지니 우리 유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하도다. 나는 평생 부자의 글을 읽으며 군신의 대륜을 밝히고자 했지만 마침내 인물의 이성(彝性)이 불행해지고 말았고 나라가 망할 때 곡하며 죽지도 못했기에 북쪽의 중원만을 바라보며 소식이 크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께서 탄신하신 오늘 열위(列位)의 말석에서 추창(趨蹌)을 얻었으니 소상(小相)의 제의는 매우 큰 영행(榮幸)이도다. 원컨대 허여한 동지들과 정도(正道)를 밝혀 필경에는 이 위에서 천하가 다스려지도록 올려놓는 것이 이 몸이 바라는 것이노라.”⁴⁰ (밑줄 필자 강조)

그는 한국 유림을 대표하여 과거의 구제를 보유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인용한 고유문에 드러난 것처럼, 조정규에게 ‘유도’는 과거의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절대적인’ 가치였다. 이는 그 어떤 것 또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마땅히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종묘와 사직 그리고 국가까지 모두 망해 버린 현실 속에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유교였기에 그는 중국으로 건너왔다. 더욱이 덕홍보의 좌절을 경험한 조정규에게 곡부라는 현장의 상징성과 가치는 더욱 간절해졌고 고유문 또한 공교의 성공을 기원하는 절실한 내면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그의 심정은, 사실 내면에 자리한 지대한 ‘불안’감의

文以深告之時，萬國皆會大，深衣大帶，唯公一人。”。

40 李正浩, 「行錄」, 『西川集』卷5, “乙卯(1915)八月二十八日, 夫子誕辰祭 中華士大夫咸萃曲阜, 列國之人大會, 先生往與焉, 既祭與諸章甫, 書略曰: 夫子道明, 則天下治; 夫子道不明, 則天下亂, 吾儒身上之責歟 惟重矣. 某平生讀夫子之書, 欲以明君臣之大倫, 遂人物之彝性不幸, 哭國不死, 北望中原, 以待大來消息. 今於夫子誕辰, 獲移列位之末, 小相祭儀, 榮幸極矣. 願許與之同學, 以明正道, 竟躋天下於上治, 此僕之願也.”

다른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덕홍보의 실패로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상황에서 곡부를 찾은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조직력은 대단히 위축된 상황이었다.⁴¹ 또한 앞서 1913년 4월 북경에 도착한 그가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 풀만 무성히 자란’ 국자감의 초라한 면모에 장탄식을 뱉었던 것처럼, 급속도로 변해가는 중화민국의 상황 속에서 유교가 더욱 설 자리를 잃음은 이미 현실화 되어가고 있었다.⁴² 나아가 상술한 것처럼 당시 일본의 21개조 요구와 혁명 정국 속 정치적 국면으로 인해 공교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했던 원세개의 상황도 매우 어려워진 현실이었다.⁴³ 즉 이처럼 간절히 유도의 재건을 호소할 때의 현실 상황은 심히 절망적인 단계로 나아가던 국면이었기에 위 고유문의 기저에는 깊은 회한이 감지된다. 아래의 시는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곡부에서 다시 봉천으로 돌아와 이승희를 만난 그의 심정을 담고 있다.

요동의 들판을 한번 크게 읊었다가	一嘯遼東野,
다시금 봉천루에 올랐습니다.	再登奉天樓.
황하(黃河)의 소식이 좋아지면	黃河消息好,
동풍에 배 타고 만 리를 떠나고 싶을 뿐이네요.	東風萬里舟. ⁴⁴

곡부기행을 마치고 다시 그곳에 돌아온 조정규의 심사는, 위 시에서 드

41 당시 그는 곡부에 함께 가는 자가 없어 탄식하고 있었다(『西川集』卷1, 「入曲阜日嘆無與偕者」).

42 『西川集』卷1, 「國子監」, “夫子文明千萬世, 帝王治道在崇儒. 滿庭春草無人掃, 三代遺風誰與扶.”

43 특히 그들이 중국 공교회와 함께 기대했던 “공교의 국교화”는 중화민국 각계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임시 의회에서의 표결 역시 부결되었다. 이후 1914년 원세개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이러한 청원운동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져 공교는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였다[韓華(2002), 「陳煥章與民國初年的國教運動」, 『近代史研究』02-3,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pp. 195-196].

44 『西川集』卷1, 「奉天館贈本啓道」.

러난 것처럼 대단히 착잡하고 복잡한 상념들이 엉켜 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덕홍보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곡부로 향하는 길에 그는 대단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한국 유림을 대표해서 참가해야만 한다고 여기며 본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곡부에 당도하기 전 서책에서나 보았던 황하를 비로소 마주할 때 ‘처음 건너는 황하(黃河), 탄식만이 돌아올 뿐이로다.’라고 읊었던 것처럼 당시 그의 내면에는 암담하고 막막한 심사가 가득함을 표출했다.⁴⁵ 그렇게 다시 텅 빈 봉천에 돌아와 마주한 60대 중·후반의 두 노유의 만남에는 긴 설명도, 더 부연할 언급도 굳이 필요 없어졌다. 이에 조정규는 그저 중국의 소식이 좋아지길 바라는 뜻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 침윤된 지식인의 고뇌와 이민자의 고달픈 내면을 위와 같은 토로한 것이다.

한편, 이 사이 봉천의 유림들은 다른 근거지를 모색하기 위해 동지들을 다시금 국내로 파견했다. 일례로 1915년 12월 ‘귀근’(歸覲)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정돈섭이 1917년 다시 들어와 산을 매입하여 경작을 시도한다. 하지만 당해 겨울 정돈섭이 다시 귀국한 것으로 미루어 결국에는 역시 큰 성과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이 사이 1916년 2월 8일(양력 3월 31일), 함께 봉천을 지키던 6살 연상의 동료이자 지우였던 이승희가 지역의 땅에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봉천 유림에게는 대단히 큰 동력의 상실로 다가왔다. 덕홍보의 좌절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이역에서 동고동락했던 이승희의 죽음을 목도한 그는 “하루아침에 그대 주공 뵈러 떠나셨으니, 옥우[玉宇, 선궁(仙宮) - 필자 주]까지 가시는 만 리 길 빛나고 빛날 테지요.”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⁴⁷ 또한 안동에 머물던 수파(守坡) 안효제(安孝濟) 역시 1916년 12월에 생을 마감한 것처럼, 고령의 유자들이 중심이 된 동삼

45 『西川集』卷1, 「入曲阜日嘆無與偕者」, “一渡黃河還歎息.”

46 金承學, 『墓誌銘』, 『陶庵集』, “十二月歸覲, 丁巳(1917)再入, 買耕山裏, 其冬又歸.”

47 奉天同館友 趙貞奎, 『韓溪遺稿』卷8, 「(一一六)輓」, “一朝君訪周公去, 玉宇昭昭萬里途.”

성한인공교회의 확장력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현지의 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상당수의 유럽들이 귀국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먼저 환인현에 머물고 있던 예대회는 한인들의 입적 강요와 비적들의 습격에 가족 한 사람을 잃는 등의 참화를 못 이겨 1916년 3월 귀국길에 올랐다. 더욱이 1917년에 봉천에는 큰 가뭄이 들어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식량을 얻고 있던 민중들의 삶에 큰 곤경이 찾아오게 된다.⁴⁸ 또한 안동현(安東縣) 접리수(接梨樹)에 일본의 경찰관과출소가 설립되며 한인촌도 크게 쇠퇴하며 지도자 노상익(盧相益)은 감시와 회유를 피해 이주를 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교 운동 및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성신태(誠信泰)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곳을 이끌던 맹보순 또한 일제의 회유에 1918년 귀국길에 올랐다.⁴⁹ 반장(返葬)을 위해 이승희의 가족과 문도들이 떠난 봉천에 남은 조정규는 이제 혼자만 다름없었다. 더욱이 곡부 공교회 측과 함께 논의되고 있던 곡부로의 이주 문제도 1917년 공상림이 사망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규 역시 귀국 준비에 나서며 국내 공교 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국내에 있던 허전의 문인 이상규(李祥奎, 1846~1922) 등은 유교의 종교화를 위해 공자·주자·안자(즉 安珦)를 배향하는 도통사(道統祠)를 진주에 창건하였다. 이들은 이후 직접 곡부를 방문을 준비하며 공교 지회설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향(安珦)의 신도비문 작성을 요청했

48 이은영(2012), 「20世紀初 儒教知識人の 亡命과 漢文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13.

49 서동일(2016), p. 196.

50 李基元, 『韓溪遺稿』卷9, 「痛慕錄」, “次第設農, 謀爲曲阜搬移計, 送趙西川貞奎及李光龍丁敦燮李鉉德權丙夏, 參曲阜釋典, 寄書孔祥霖, 約搬移節次, 大命遽促, 竟未遂志而沒, 痛矣痛矣.” 참고로 공상림(孔祥霖 1852~1917)의 자는 소점(少霽) 호는 달오(達吾)로 공자의 27대손이다. 1877년(광서 3년) 진사에 오른 뒤 한림원 서길사(翰林院 庶吉士)로 관직을 시작했고, 1909년(선통 원년) 하남(河南) 제학사(提學使)로 관직을 마쳤다. 이후 1914년 곡부공교총회총리로 임명되었고 1916년에는 곡부 경학회 회장을 맡았다. 이 시기 곡부를 찾은 이승희, 이병현, 조정규 등의 한인 유럽들과 교류했다.

었다.⁵¹ 당시 봉천에 머물며 공자탄신제 참석을 통해 곡부의 공상림과 친분이 있던 조정규 역시 이들을 위해 그에게 편지를 보내 협조를 구했다. 그는 “성인의 자손이신 지금의 총리 노선생 공소점의 춘추필법은 모든 천하의 현자들이 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라며 도통사의 활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지회성립에 힘을 보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²

이에 건강까지 쇠해진 조정규는 곡부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마지막 이상을 접고 1918년, 약 5년간의 봉천 생활을 뒤로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다.⁵³ 요컨대 그를 통해 나타난 당시 서간도 유림들의 귀향 동인은 크게 ‘덕홍보 개척 좌절, 이승희의 죽음,⁵⁴ 곡부 이주의 실패와 공교운동의 부진, 일제의 감시와 현지 사정의 불안’ 등으로 압축된다. 또한 조정규에게는 진주 도통사의 공교 지회승인으로 말미암아 국내 공교운동 거점 확보도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귀환의 중요한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집에는 조정규의 귀국을 “지리 사정이 좋지 못했고 또 몸에 병이 들어 귀국했다.”라고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의 귀국은 위와 같은 다양한 현실 조건 하에서의

51 이정희(2015), 「일제시기 경남지역의 孔敎運動 연구」, 『남명학연구』 46, 경남문화연구원, p. 104(참고로 도통사 공교지회 임원 중에 그의 일가인 趙鼎奎가 都約正을 맡고 있었다).

52 「西川集」卷2, 「與孔提學少霽」, “嗚呼! 高麗之斯文先正晦軒先生安文成公神道之碑, 欽惟大德, 孰可其銘, 泰山高矣; 黃河遠矣. 聖人子孫今有總理老先生孔少霽, 春秋之筆, 凡天下之爲大賢求言者.”

53 盧相稷, 「西川集」卷5, 「趙西川墓碣銘(并序)」, “作黃河泰山歌, 以示欲居之意留奉天, 前後凡五載及還”

54 한편 이승희의 고종(考終)은 이승희라는 상징적 존재의 부재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1916년 이승희는 현지의 공동묘지를 장지로 사용하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기원이 돌아본 주변의 풍경과 매장 풍습으로는 유체(遺體)의 안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중과의 협의를 통해 반장(返葬)을 결정하자 “선생은 자식이 있거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힘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라며 극렬 반대하는 인사도 등장했다. 최후에는 고향으로 유체를 옮겼는데 일경의 방해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도 신병이 찾아온 조정규의 귀국을 서두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판단이다[한길로(2021b),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 전승의 일면」,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pp. 116-117].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⁵⁵ 요컨대 그의 귀국은 봉천에 머물던 유럽들에 의한 유교 공동체 구축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면서, 이후 공교 운동의 중심이 중국에서 국내(경남 일대)로 전환됨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사실상 이승희 중심의 국외 공교운동의 마침표와 같았다고 평할 수 있는 지점이다.

후에 조정규가 자술한 것처럼 노구였던 그의 중국행은, 사실 보기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무모해 보이는 행로였다. 하지만 ‘유자로 태어나 유자의 삶을 살며 유자로서의 삶을 마감’하려던 뜻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생의 의지’였다. 물론 그것은 복고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1910년 전후 대동학회나 경학원 같은 식민지 어용 유교 단체들이 유도를 ‘참칭’하던 시기, 이와 단호히 결별하고 진정한 유교 정신의 구현과 국권회복을 위해 직접 중화의 땅으로 향해 공교운동을 전개하고 또 국내 지회의 성립에도 일조한 것은 분명 한국 유교사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또한 유교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고국을 잃은 채 이역을 유랑하는 고국의 난민(難民)들과 함께하고자 홀연히 가산을 정리하며 시작된 봉천에서의 생활은, 1910년대 빈한과 동뇌(凍餒)에 시달리던 이민자들의 현실을 함께 해결해 보려는 ‘동포애’의 일면을 담고 있었다.⁵⁶ 이렇게 중국에서의 생활을 마친 그는 5년간의 회한과 탄식을 “단 원하는 것은 평생의 뜻을 펼치고 전인들의 방책(方策)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나를 모르는 자, 나를 어리석다 이르리라.”라는 짧고도 진한 마지막 소회를 전했다.⁵⁷

55 宋鎬坤, 『西川集』 卷5, 「墓誌銘」, “奉天省前後凡五載, 地不宜, 身且病而歸.”

56 귀국 후 1년 뒤 그는 곽종석의 파리장서사건을 접하자 이를 기꺼이 여기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천하를 위해 마땅히 자임해야 할 일’이라 격려하며 이를 “만방이 모두 크게 모일 한 선비의 신독한 고음(高音)”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난다. 귀국 후 2년 뒤의 일이었다(『西川集』 卷1, 「聞郭徵君巴里長書喜賦一絕」, “丈夫生於世, 天下須自任, 萬方咸大萃, 一士獨高音.”).

57 『西川集』 卷1, 「放歌」, “但願長使平生志, 不負前人于方策. …(中略)… 不知我者, 謂我之癡

4. 결론

본고는 영남 함안의 조정규의 삶에서 중국 봉천으로의 이주와 귀향을 집중 조명하며 당시 서간도에 머물던 재중 한인 유림들의 삶과 내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덕홍보의 지리적 특성과 위치 그리고 매입한 부지의 크기 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승희를 중심으로 서술되던 덕홍보 사업의 ‘전후’에 그가 있었고 그의 역할 역시 상당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즉 그 역시 덕홍보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승희와 동행하며 그곳에 열정과 혼신을 쏟았던 인물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그가 비록 동삼성한인공교회의 발기인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본 단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한국 유림을 대표하여 곡부에 찾아가 한·중 유림의 ‘협작’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부각하였다.

1905년 이후 이민족의 압제가 시작되자 그는, 먼저 중국 서간도 일대와 북경을 직접 유람하며 피지의 뜻을 재차 점검한다. 유도의 회복이라는 대의명분도 있었지만, 서간도 일대의 한인들이 처참한 생활을 직접 목도한 것 역시 이주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이끌었다. 북경까지를 유람한 그는 당시 안동에 머물던 이승희를 만나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논의한 뒤, 귀향 후 가산을 정리하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본격적인 도정에 올랐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지역의 여관방에서 함께 지내던 동삼성한인공교회의 지도자 이승희의 죽음, 곡부로의 이주 실패, 일제의 회유와 현지 치안의 불안정으로 동료들의 귀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국내 공교 운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윽고 1918년 노환으로 귀국하게 되며 ‘이역 아닌 이역’이었던 중국 봉천에서의 짧은 이주 생활이 종료되었다.

그의 중국 체험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국망과 함께 이어진 이민자들의 고달픈 삶의 복판으로 걸어가 그들과 함께하며 고통을 분담하려 했던 한

노유(老儒)의 ‘동포애’와 지식인으로서 보여준 ‘소명의식’의 실천이었다. 또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국난 해결에 일조하고, 또 유학의 ‘인문정신’으로 약육강식의 시대와 맞서 투쟁하려던 근대 유럽이 보여준 ‘유교적 저항’의 궤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귀향은 곧 1910년대 초 이승희 중심의 공교 운동의 잠정적 중단과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공교 운동은 국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물론 그의 방법론이 갖는 한계는 비교적 자명하다. 하지만 기존의 한학(漢學) 전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세대’인 그가 ‘해외’에서 보여준 행적은 단선적인 평가가 아닌, 보다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요하는 지점이다. 끝으로 ‘덕홍보’는 그 시대의 유럽을 포함한 이주 한인들의 숨결을 간직한 유의미한 해외 사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공간과 주요 인물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자료

『西川集』, 『韓溪遺稿』, 『陶庵集』, 『毅菴集』, 『晶山集』, 『弘窩集』, 『晦堂集』, 『遼左紀行』

논저

- 강동욱(2011), 「성재 허전 강우지역 문인 고찰」, 『남명학』 3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 김기승(2007), 「한계 이승희의 독립운동과 대동사회 건설 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주용(2021), 「한인의 서간도·북간도 이주와 정착」, 『재외한인연구』 54, 재외한인학회.
- 노경민(2016), 「철도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본 심양의 근대도시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5-2, 한국건축역사학회.
- 서동일(2016),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 56, 수선사학회.
- 서동일(2013), 「1910년대 한중 유럽의 교류와 공교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야부우치 기요시(藪内清, 1997), 전상운 역, 『중국의 과학문명』, 민음사.
- 윤호진(2010), 「西川 趙貞奎의 삶과 詩世界」,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함안군·함안문화원, 술이.
- 이경식(2006),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윤갑(2013), 「한말 일제 초기 이승희의 민족운동」, 『동서인문학』 4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은영(2012), 「20세기 초 유교지식의 망명과 한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2015), 「일제시기 경남지역의 孔敎運動 연구」, 『남명학연구』 4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 전설련(2019), 「서천 조정규의 중국 체험의 시적 구현과 그 의의」, 『인문사회 21』 36, 아시안문화학술원.
- 중국사학회 편(2005), 강영매(역), 『중국역사박물관』, 범우사.
- 한길로(2021a), 「근대 한·중 문인의 필담에 나타난 ‘중화민국과 유도’ 인식의 일면」, 『인문과학』 8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한길로(2021b),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 전승의 일면」,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 한길로(2021c), 「한계 이승희의 곡부(曲阜) 방문 소회와 현실인식 고찰」, 『어문논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 沈阳市民委民族志编纂办公室 編(1988), 『沈阳朝鲜族志』, 辽宁民族出版社.
- 韓華(2002), 「陈焕章与民国初年的国教运动」, 『近代史研究』 02-3,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3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A Study on a Local Korean
Confucian Scholar's Process of
Migration to Deokheungbo
(德兴堡), Fengtian,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His
Return in the 1910's

Han, Gilro*

Focusing on the Case of Seocheon Jo Jeonggyu

The Haman (咸安) scholar Seocheon Jo Jeonggyu (趙貞奎) planned to move away from the colonial reality, and in 1913 he crossed the Amnok River to Beijing to check up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 He discovered the disastrous lives of Korean immigrants living in Seogando, China. Accordingly, on his way back, he met Lee Seung-hee (李承熙), who was in Andong (安東) at the time, and made a detailed plan. After returning to his hometown, he hurried to prepare for immigration by selling his property, and in August 1914, he arrived in Fengtian (奉天), China, and began to build a base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 participation was of great help to Lee Seung-hee, who was leading it, and eventually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mmigration to Bongcheon. They expected a stable life by purchasing the land of

— www.kci.go.k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Jilin University

Deokheungbo (德興堡), which was 2/3 the size of Yeouido in Seoul. However, various disasters continued and unfortunately the community building at Deokhungbo ended. Later, he tried to immigrate again to the Qufu (曲阜) of Shandong Province, Confucius' hometown, but he also failed; in 1916, Lee Seung-hee, his close friend and senior, died. In 1917, the Confucius Branch in Korea was also established. In 1918, when he returned to his hometown due to illness, his immigrant life also ended. As a result, his trip to China can be judged as a series of failures and frustrations. However, his actions also meant meaningful Confucian resistance in the modern era, which included social responsibility and brotherly affection of the intellectual. Therefore, Deokheungbo is a meaningful historical site that retains the sadness of modern Confucian scholars and Korean immigrants. In addition, his return contains the symbolism of the transition of the center of the Confucius movement from China to Korea.

Keywords Jo-Jeonggyu, *Seocheonjib* (西川集), Deokheungbo (德興堡), Lee Seung-hee, Confucian Religion Movement